

해남군, 농촌 활력 충전 살기좋은 농촌마을 기반확충

농촌공간정비·정주여건개선 등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 추진

해남군이 농촌마을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 활력 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어 산이 급호 농촌공간정비사업(127억원), 계곡 둔주, 북평 신흥, 송지 마봉, 북평 영전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80억원), 현산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

5,000만원) 등 총 21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산이면 급호마을에 대해 2027년까지 폐교, 폐공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어울림센터, 귀농인입대주택, 다목적작업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계곡 둔주, 북평 신흥, 북평 영전, 송지 마봉마을은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취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정비,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산면 일평리에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과거 예비군중대로 사용하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미디어 문화향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관협력 농촌빈집 프로젝트 1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마산면 10호, 북평면 10호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및 마을호텔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에도 농촌협약

(432억원),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50억원), 육천 용동 취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0억원)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 발굴 등과 함께 선정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히 준비로 변화하는 농촌지역 개발 정책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워킹맘 데이 운영 마카롱 원데이클래스 등

강진군은 지난 16일 강진군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양육에 지친 여성을 위한 ‘워킹맘 데이’를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킹맘 데이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6월에는 워킹맘은 원데이클래스 및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남편과 자녀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치즈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워킹맘은 마카롱을 만드는 원데이클래스 수업을 하는 동안 남편과 자녀는 구례에 있는 자연드림테마파크를 방문해 피자 만들기 보고 지리산 치즈랜드를 방문, 양떼목장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직장인 여성들은 직접 마카롱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랜만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김윤복 기자

도 인구정책·귀농어귀촌 시상식 완도군 우수상 수상

완도군은 19일 전남도 주관 ‘2023년 인구정책·귀농어귀촌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인구정책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 극복 노력과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완도 청년센터 완생’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 청년 마을·상가·주택 등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 공로도 인정됐다.

‘귀농어귀촌’ 종합 평가에서는 완도군으로 전입한 귀농어귀촌 유지 실적과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진도군, 불링장 운영 시작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진도군이 불링장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김인정 전라남도의원, 조규철 체육회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개관식과 함께 제1회 진도군수배 불링대회도 개최해 약 80여 팀이 선의의 경쟁을 치렀다.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 국비 11억원과 군비 24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해 943.41㎡ 규모의 불링장은 지난 2022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올해 8월 준공됐다.

총 10데인을 설치하고 휴게실, 라커룸 등의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춰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1월 진도군 체육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일 평균 약 100여명, 지금까지 총 2800여명의 군민이 불링장을 이용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겨울철 대비 거리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무안군 일로읍(읍장 김수영)이 지난 18일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낙엽 청소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로읍사무소 사거리를 중심으로 낙엽이 많이 떨어진 대로변의 골목 쓰레기들과 낙엽을 치우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복례 일로읍 새마을부녀회장은 “겨울철 도로변에 쌓인 낙엽은 통행시 미끄럼 사고를 유발한다고 들었다”며 “이번 봉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일로 만들기에 일조한 것 같아 보람있다”고 말했다.

김수영 일로읍장은 “주말에 내린 눈과 급격히 내려간 기온에도 불구하고 휴먼지를 뒤집어쓰며 애써주신 일로읍 새마을부녀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강진군, 챗GPT 행정 접목 활용 초과근무 급량비 자동 산출 교육

강진군은 지난 15일 챗GPT의 행정접목 기술시연 및 직원교육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챗GPT를 활용한 민원답변서, 인사말, 기획서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고 사용법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지난 4월 챗GPT의 활용법을 익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챗GPT 사용법을 시연한 이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4차산업혁명지원팀에서 챗GPT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과근무 급량비 자동 산출 프로그램과 각종 지출 시 사전절차 체크리스트 등 일상업무처리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강진군은 챗GPT 시연회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멜커피 블렌딩 이미지 제작, 민원 인허가 안내 웹페이지 제작, 각종 과업지시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해 왔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챗GPT와 미드저니 등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이나 AI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 행정 접목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필요시 지원하며 행정예의 빠른 접목을 선제적으로 실현해오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난 18일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가 낙엽정소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강진시문학과기념관,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고택·종갓집 분야 문화재청장 상

강진군 시문학과기념관이 최근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시문학과기념관이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주관한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우수사업 고택·종갓집분야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고택·종갓집 분야 수상은 총 4곳으로 강진군, 경기 고양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이다. ‘더#252 영랑생가’는 시문학파기념관이 2021년부터 기획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정책의 모범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의·식·주·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데



강진 시문학파기념관(관장 이석우오른쪽)이 최근 문화재청이 주최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시문학파기념관 제공

중점을 뒀다.

관련 사업은 △강진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자유학년제 콘텐츠 영랑 감성아카데미 △영랑의 일대기와 강진의 옛 이야기를 구연하는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영랑 시인학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

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강진군을 방문하는 시·문학·예술인 및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인문학적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어린이도서관, 2024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목포어린이도서관(관장 최진수)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해 2024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9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상상력을 깨우는 창의공작 △마술사가 되어보자 △엄지피아노 칼림바 등으로 미취학 아동·초등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체험강좌위주로 진행된다.

1월16일부터는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20일, 겨울독서교실은 오는 27일부터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별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1-287-192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